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2024년도 주제 성구: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로마서 12:12)
- 오늘 세례자: 조세하 교우(13시 15분 세례문답, Teestube)
- 송년주일예배: 오는 주일, 은퇴식(김영희, 김영수, 양귀남)
- 신년새벽기도회: 1월 1일(월)-6일(토) 07시 Teestube 믿음방
- 신년주일연합예배: 1월 7일 주일, 말씀받기
- 2024서리집사자원: 오늘까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관헌금 구좌개설: DE49 3005 0110 3007 9500 29
- 찬양대 및 교사, 각 부서에서 섬기실 분들을 찾습니다.
- 각 부서와 나라, 자치단체 등은 12월 중으로 내년도 조직을 알려주세요.

◆말씀일기 일정

일/빌3:1-11 월/빌3:12-21 화/빌4:1-23 수/시95:1-11
 목/시96:1-13 금/시97:1-12 토/시98:1-9 일/시99:1-9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15독

◆ 예배위원 안내 ◆

	12월 25일	12월 31일	1월 7일	1월 14일
예배기도	박희영	조경숙	우선화	서민규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오지훈, 이선영			
애찬위원	다함께	밥상 여둠	밥상 하나	밥상 둘

40-52a호

2023년 12월 25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2:00 Teestube 믿음방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15:30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성탄절예배 (Weihnachtsgottesdienst)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114장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시교독/Wechselwort	교독문119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123장	다 함 께
기도/Gebet		박희영 집사
찬양/Chor	저기 저 별이	유 초 등 부
	Goodness of God	청 소 년 부
	천사 찬송하기를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누가복음 2:8-20	인 도 자
설교/Predigt	아기 예수 대합창곡	손교훈 목사
세례식/Taufe	집례	인 도 자
성찬식/Abendmahl	선한 능력으로(Von guten Mächten)....첼로	표현아 교우
찬송/Gemeindelied	125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찬양/Gemeindelied	천사 찬송하기를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헨리 나우웬의 '성탄 기도' ◀

오, 주님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은 제게 타향에서 태어난 작고 무력한 아이로 오십니다.
주님은 저를 위해 자기 땅에 오시어 이방인으로 사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도시의 성벽 밖에서 범죄자로 죽으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시고 벗들에게 오해 받으시고
하나님에게마저 버림받은 채로 말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도 저는
사랑 받고 인정 받으려 하고,
이 세상을 내 집 삼으려 하며,
저를 괴롭히는 그 자그마한 소외감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느끼는 소속감보다
오히려 이따금씩 갖는, 집을 잃은 듯한 막막한 심정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제가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늑한 내 집일까요? 낯선 타관일까요?
반겨주는 친구들 틈일까요? 미지의 이방인들 틈에서일까요?
행복감 속에서일까요? 외로움 속에서일까요?

주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하는 그런 일에서
제 자신, 굳이 달아나지 않도록 이끄소서.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것처럼
저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에....

그런 심정이 들 때마다 실은 감사의 기회요
주님을 더 꼭 끌어안고,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더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주 예수님, 오셔서 제 심령 가장 비참한 곳에 저와 함께 머무소서.
여기가 바로 주님의 구유가 있을 곳이에요
주님께서 빛을 비취 주실 곳임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오소서, 오소서. 아멘.